



청주대학교가 내일이라는 무지개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린 뒤 단단히 굳어진 대지 위에
푸른 새싹이 움트고 꽃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새로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지난 시간 무수한 고민과 성찰들은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강인한 힘과 의지를 모아 이제 우리는,
중부권 최고 명문사학의 위상을 견고히 할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의 소통과 화합으로
더 높이 도약할 청주대학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 길은 영롱하게 빛나는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또 아름다울 것입니다.



와우청대 2016 SPRING VOL. 231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6 SPRING VOL. 231

WOW는 '세계를 향한 창
(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입니다.

봄. 와우청대

WOW CHEONGDAE



이른 봄, 수줍은 꽃잎을 피워내며
가장 먼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매화처럼,
고결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를 지닌 우리, 청대인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다

청인보淸人譜
청석ALETHEIA 칼리지 초대 학장 한대균 교수
우리은행 신입행원 김영우 동문

특별대담- 융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IT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
국어국문학과 김희숙 교수 & 전자공학과 차형우 교수





오래된 골목 가득 총천연색 꿈을 그리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땅에 꽃을 심고, 낡고 오래된 벽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밀그림을 그리고, 색을 채워 넣어도
마냥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정겨운 골목길.

그곳에 재능 나눔으로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청년의 따스한 봄 햇살 같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청주대학교는 앞으로도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통의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맑은 고을 깨끗한 청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 중인 청주시의 계림라 가드닝 사업에 우리대학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대학 캠퍼스 인근에 자리한 수동 곳곳에 새로운 벽화를 선보인 이번 봉사활동에는 우리대학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충북대 환경공학과 학생들과 청주시청 관계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와우청대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6 SPRING VOL. 231

청주대학교 소식지 (와우청대)의 '와우(WOW)'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우청대

2016년 봄호(통권 231호)
발행일 2016년 4월 30일
발행인 김병기
편집인 이상철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취재 이은형
가격 4,000원

Contents

- 02 총장실에서 온 편지
- 04 CJU Focus 청주대, 충청권 대학 중 취업률 1위 달성 외

진심眞心,

오직 학생을 향하다

- 08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다
- 12 Special Review CK-I 사업단 전시회 〈Black & White Project Show〉
- 14 Special Interview 〈Black & White Project Show〉 전시 총괄 디렉터 이성욱 학생

명문名門,

이름을 남기다

- 16 청인보淸人譜 제1장 청석ALETHEIA 칼리지 초대 학장 한대균 교수
- 18 청인보淸人譜 제2장 우리은행 신입행원 김영우 동문
- 20 청인보淸人譜 제3장 청주대학교 탁구팀 창단 멤버 조안나 학생

몰입沒入,

진리를 탐구하다

- 24 특별대담- 융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IT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
- 28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중심, 청주학연구원 개원
- 30 책에서 배우는 지혜 책 속에서 뜨겁게 성장하라, 청춘의 길을 찾아라_ 호텔경영학과 손일락 교수

실천實踐,

세상을 밝히다

- 34 지역과 어깨동무 중앙동 소나무길 프리마켓 후원하는 청주대학교
- 36 지식과 재능의 선순환 청대인, 전통시장의 청년 홍보전략가로 나서다
- 38 나의 세계문화 순례기 영국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_ 관광경영학과 오승희

소통疏通,

오늘을 전하다

- 42 단신뉴스 청주대, 노사공동 선언 합의문 발표 외
- 44 인물뉴스 도정님 교수, 제16대 한국발레협회장 선출 외
- 46 명사들과의 만남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 명사특강 외

- 48 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봄.





더 커진 화합의 목소리로 청주대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나뭇가지마다 어린 연꽃빛이 고개를 내밀고 봄날의 향연을 펼치는 요즘입니다. 마치 청주대학교 캠퍼스를 희망의 색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아 아침마다 행복한 마음 가득합니다.

청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지난 겨울까지 우리 청주대학교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다시 푸르러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동안 학문의 전당으로서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조율이 있어 왔고, 최근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 화합 선언'을 계기로 마침내 대학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조성된 면학분위기를 살려나가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우리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경쟁력을 높여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회복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성화 사업과 산학협력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집중하여 청주대학교이기에 잘할 수 있는 분야, 꼭 도전해야 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주저 없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청주대학교 전 구성원이 열의와 정성을 쏟을 예정입니다.

청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대학교를 아껴주시는 모든 여러분!

오랜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이제 청주대학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응원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시오. 청주대학교가 아직 보여주지 못한 많은 것을 기대해주시시오.

함께이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김병기

김병기 총장, 학생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행보



김병기 총장이 지난 3월 각 단과대학을 비롯한 캠퍼스 곳곳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김병기 총장은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뒤 층별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곧바로 휴식공간 설치를

지시했으며, 중앙도서관 증축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임시도서관을 찾아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부족한 시설이나 공간 확충 등을 약속했다. 김병기 총장은 앞으로도 모든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학생중심에 두는 등 학생을 위한 행정에 전념할 방침이다.

김병기 총장, 장춘이공대학 광전정보학원 국전민 총장과 환담



지난 1월 19일 김병기 총장은 총장실에서 국전민(鞠殿民) 장춘이공대학 광전정보학원 총장을 만나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환담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장춘이공대학 광전정보학원 학생은 앞으로 2년의 학사과정을 마친 뒤 우리대학에 편입하거나 교환학생, 석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우리대학을 예방한 국전민 총장 일행은 협약 체결 후 태양광연구소와 한국어교육센터, 기숙사 등을 둘러봤다. 장춘이공대학 광전정보학원은 중국 길림성 장춘에 장춘이공대학과 장춘중산실업그룹이 2001년 함께 설립한 학교다.

중부권 최고의
취업명문으로 도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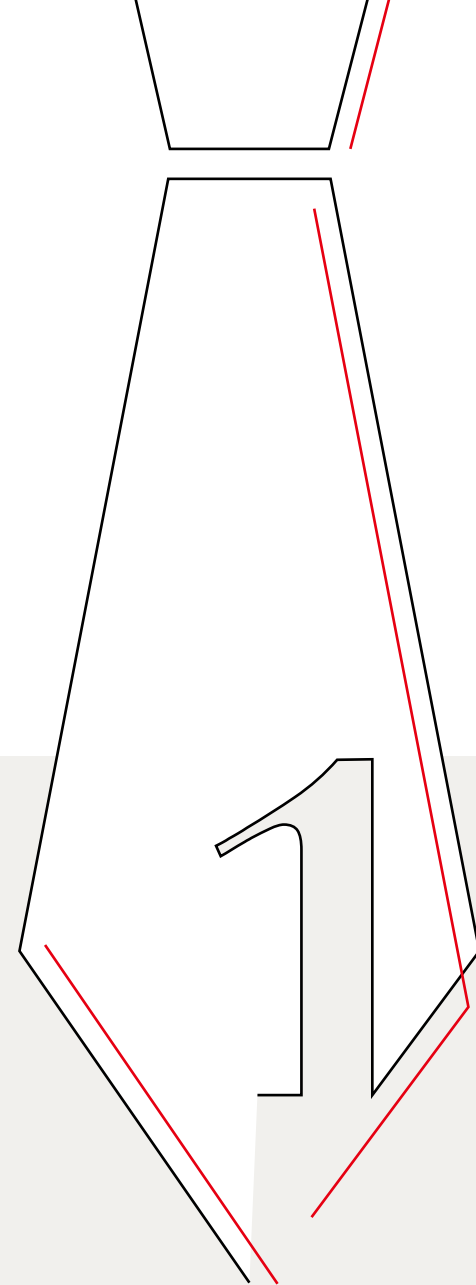
청주대, 충청권 대학 중 취업률 1위 기록

우리대학이 충청권 '가' 그룹(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 중에서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우리대학은 취업률 6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취업률은 2014년 졸업생(2013년 8월~2014년 2월 졸업자)의 그 해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 비율이다.

학과별로는 방사선학과(90.9%)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건축학과(88.2%), 의료경영학과(88.2%), 간호학과(86.4%), 치위생학과(85.2%), 문헌정보학과(83.3%), 레이저광정보공학과(77.5%), 반도체공학과(74.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울산대(66.3%)와 동의대(65.4%), 동아대(64.1%), 원광대(63.2%), 부경대(62.9%)에 이어 취업률 6위를 차지했다. 정진주 인재개발원장은 "우리대학은 수 년 전부터 채용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영입과 취업지원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특히, 학생개인별로 빈틈없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은 취업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취업지원실을 총장 직속 인재개발원으로 승격, 개편하고 진로와 취업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진로 및 취업 지원 트랙을 5가지로 체계화하여 과감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인재개발원 취업지원팀이 작년부터 가동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5개의 트랙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커리어 로드맵이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하고, 경험하면서 초기 진로 탐색부터 본격적인 취업준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인재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취업률 상위권 학과

이번 통계결과에 따르면 방사선학과가 90.9%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건축학과(88.2%)와 의료경영학과(88.2%), 간호학과(86.4%), 치위생학과(85.2%), 문헌정보학과(83.3%), 레이저광정보공학과(77.5%), 반도체공학과(74.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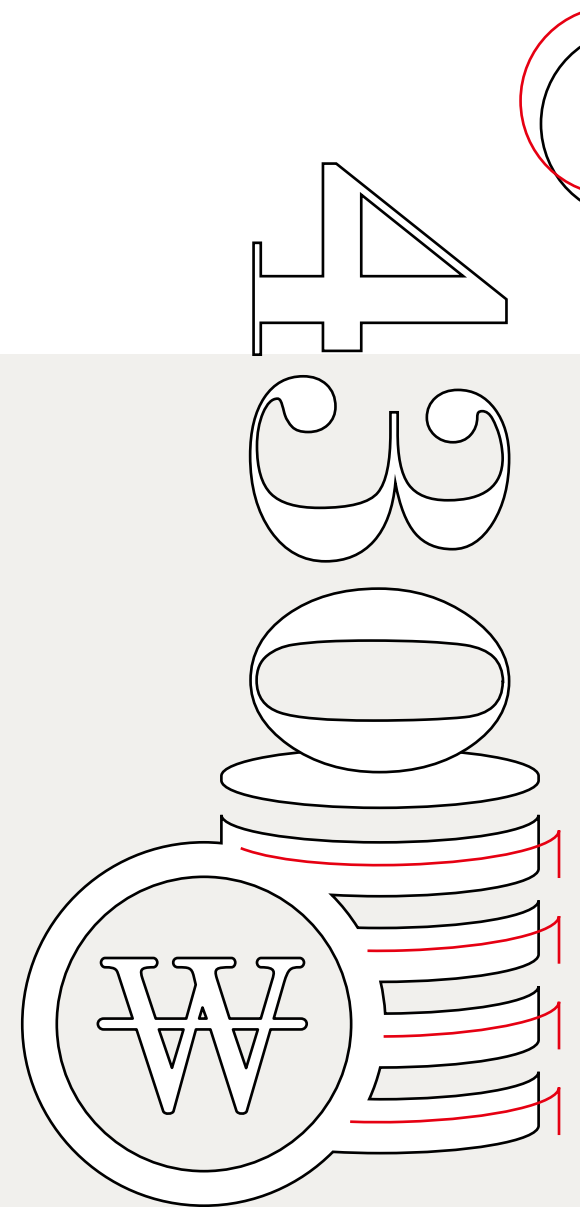
풍부한 적립금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길을 열다

청주대, 올해에만 적립금 430억 원 투입

우리대학이 올해 등록금 동결과 함께 적립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등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대학은 지난 1월 25일 교직원과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학년도 예산에 적립금 430억 원 투입과 등록금 동결, 학생 기숙사비 2% 인하 등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교원확보를 확대 등 등록금 인상요인이 많았으나 등심위 학생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등록금 동결과 함께 올 한해 동안 전체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30억 원의 적립금을 투입, 학교 발전방안에 사용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적립금에서 430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과 수업 질 향상, 취·창업 및 학과특성화 지원,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당초 등록금을 인상할 예정이던 학교 측은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줄다리기 끝에 등록금을 동결한 뒤 적립금 수 백억 원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김병기 총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동결을 결정했다"며 "등록금 동결과 함께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대학은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였지만 지난해 전국 대학 최대 폭인 4%를 인하하는 등 지난 4년간 등록금을 인하한 바 있다.



430억 원, 어디에 쓰이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올해 투입 예정인 적립금 430억 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취·창업 및 학과 특성화 지원,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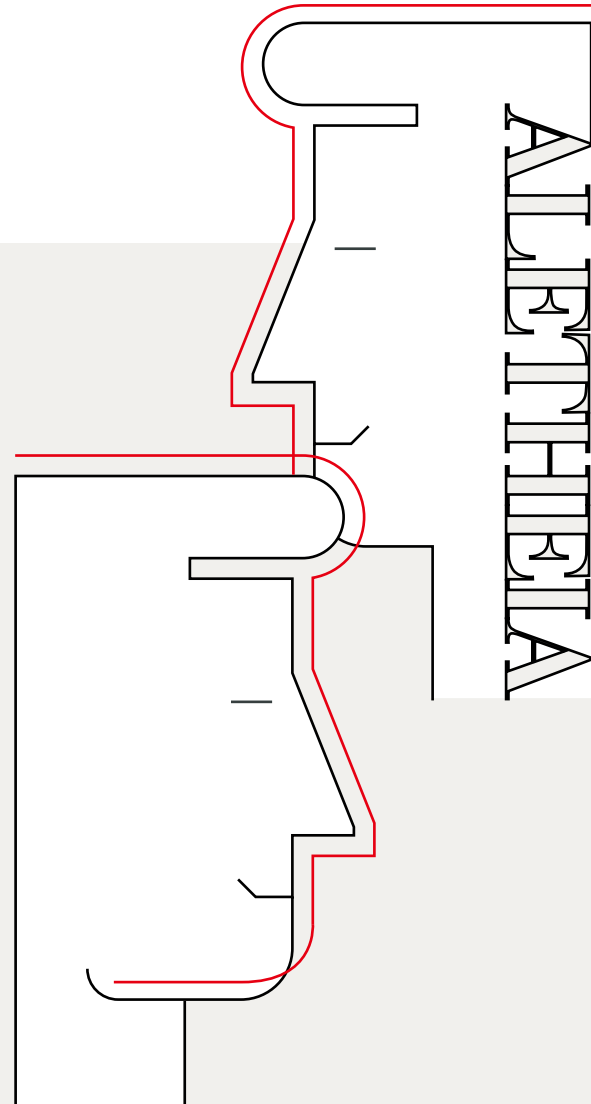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명문의 부활을 예고하다

청주대, 산학부총장제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우리대학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위기돌파에 나선다. 지난 2월 우리대학은 역동성 넘치는 대학행정 구현과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학부총장제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학교 측은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 도모를 위해 부총장을 행정부총장과 산학부총장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제출, 인준받았다. 이번 안에 따르면 행정부총장은 교무, 입학, 학생, 국제교류 및 일반행정 전반을, 산학부총장은 산학과 취·창업 업무, 산학 관련 대외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산학부총장 산하에는 산학, 취·창업 업무를 지원할 기존의 산학협력단과 인재개발원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센터 등을 거느린 학생창업지원단이 신설됐다.

학교 측은 이와 함께 교양교육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청석ALETHEIA 칼리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교육혁신본부와 교양교육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도 어학교육원과 외국어교육센터를 통합해 교양교육본부 내에 외국어교육부를, 장기비전 수립 및 체계화, 경영혁신, 특수 수익사업 등을 위해 기획처 산하에 미래전략부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박물관 산하에는 청석교육역사관을 신설해 대학은 물론 청석학원 산하 각급 학교의 역사자료를 전시·관리하고 설립자의 설립정신에 대한 교육 및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병기 총장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한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 도모, 산학협력 증대와 학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특히 산학부총장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창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석ALETHEIA 칼리지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청석ALETHEIA 칼리지'는 학생들의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산하에 교육혁신본부와 교양교육본부를 두고 있다. 'ALETHEIA'는 그리스어로 '진리'를 뜻하며, 그간 대학교육이 소홀했던 학문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심眞心 오직 학생을 향하다

학생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학. 그래서 학생 모두가 행복한 대학. 존중과 배려로 오직 학생을 섬기는 진심이 학생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청주대학교의 힘입니다.

08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다



12

Special Review

CK-I 사업단 전시회
(Black & White Project Show)



14

Special Interview

(Black & White Project Show)
전시 총괄 디렉터 이성욱 학생





청주대학교,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다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다

올 들어 우리대학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대학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으고 있다. 비교우위에 있는 특성화 학과와 산학협력 사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대학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6개의 특성화사업단과 산학협력 중점사업 등에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교육이 바로 서는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대학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2016년 선정된 특성화사업단 및 참여학과 수

6개 20학과

바이오메디팜 산학융합단 참여학생 수

451명

5년간 특성화사업단, 산학협력사업 등에 투자하는 지원금 총액

100억 원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6개의 특성화사업단 선정

2016년 우리대학은 교육혁신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단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학과 간의 소통과 교류, 산학협력의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방법, 내용 등의 실질적인 혁신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진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지난 2월 24일 대학 특성화사업 포럼 개최에 이어 3월 8일에는 본관 대회의실에서 학문분야 융복합 특성화사업 및 산학협력 중점사업단 선정에 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대학은 학문간의 융복합을 통해 학과간 단절을 극복하고,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산학연계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자할 6개의 사업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단은 학문분야 융복합 특성화사업의 '공공기관 맞춤형 창의융합인재 양성사업단(단장: 법학과 진재구 교수)', '지역밀착형 리빙플랫폼 창의디자이너 양성사업단(단장: 건축학과 김미연 교수)' 등 두 곳과 산학협력 중점사업의 '빅데이터 기반 도농지역 친환경 재생사업단(단장: 토목공학과 권혁재 교수)',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산학협력사업단(단장: 전자공학과 김희석 교수)', '디자인 헬스케어 융합가치창출 사업단(단장: 산업디자인학과 김동호 교수)', '바이오메디팜 산학융합단(단장: 바이오메디컬학과 이명선 교수)' 등 네 곳이다.

융복합 전공(학문 분야 융복합 특성화사업)

1 공공기관 맞춤형 창의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5년 기준 총 316개이며, 이 가운데 공기업이 30개, 준 정부기관이 86개, 기타 공공기관이 200개로 집계되고 있다. 공공기관 맞춤형 창의융합인재 양성사업단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법학과,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가 힘을 모았다. 또한, 사업단 측은 전국의 공공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관계자 포럼을 개최하고, 외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강단에 서는 공공기관 실무과목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서의 현장실습,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공공인재 융복합전공' 교육과정에서 총 36학점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정책학사-공공인재융복합전공)이 인정되며, 총 21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공공인재융복합전공)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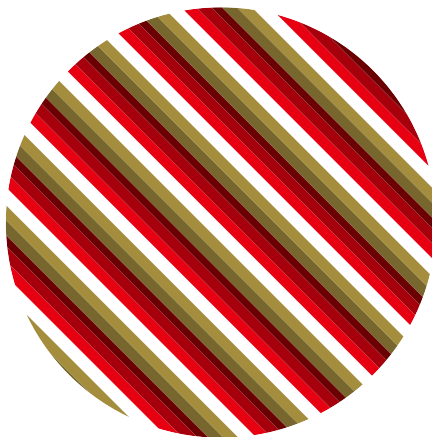
2 지역밀착형 리빙플랫폼 창의디자이너 양성사업단
 최근 도시·건축·공예 분야, 즉 리빙디자인 분야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점차 도시 공간 디자인의 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단에서는 건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공예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정제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디자인 기반의 도시환경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간 디자인', 이용자 중심의 예술적 '생활용품 디자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디자인' 등을 중심 키워드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성화 교과목에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산학공동 팀 프로젝트 수행 시 전문 멘토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전공트랙(산학협력 중점사업)

1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산학협력사업단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사물인터넷은 궁극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다는 개념이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는 물론이고 TV, 냉장고, 자동차, 기계와 설비, 화장품, 지갑, 칫솔, 시계, 안경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는 무한하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될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산학협력사업단은 센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전공 학과인 반도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IoT 트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IoT 특성화 분야의 기술 개발 건수를 확대하기 위해 산학협동기술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문기업 및 가족회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창업교과목 등을 운영하고,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2 빅데이터 기반 도농지역 친환경 재생사업단
 빅데이터 기반 도농지역 친환경 재생사업단은 지속가능한 공생형 산학협력을 꿈꾼다. 이를 위해 사업단이 주목한 것은 중복권을 중심으로 한 환경기술, 지역개발, SOC 재생 및 운영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상용화를 위한 연구다. 구체적으로 도농지역 재생기술, 친환경 도시개발, 물환경 기술개발, 대기오염 방지기술, 지중매설물 운영관리기술, 도로교통시스템 구축기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산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통계학과가 사업단의 특성화 분야(환경기술, 지역개발, SOC 재생 및 운영기술) 연구사업을 이끌어가게 된다. 특성화 분야와 연관된 학과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기업 맞춤형 트랙을 마련하여 기술혁신형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 기업맞춤형 트랙: 종합시공트랙, 수질환경트랙, 도로교통트랙, 국토계획트랙, 지반환경트랙, 자원재생트랙, SOC운영관리트랙, 건설정보트랙 등



3 디자인 헬스케어 융합가치창출 사업단
 헬스케어 분야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투자가 활발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선진국형 국가가 늘어날수록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영역 확장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디자인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의료경영학과가 힘을 모은 디자인 헬스케어 융합가치창출사업단은 '첨단 디자인' 영역과 '보건의료 산업'의 융합으로 전공 간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Next Item(아이디어, 기술, 제품, 서비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기술이전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를 리딩할 수 있는 사업단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4 바이오메디팜 산학융합단
 의약·바이오산업은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충청북도의 전략적인 특화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청주(오송)는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바이오 분야 국책기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제1, 2생명과학단지, 바이오벤처, 바이오캠퍼스 등)가 집결한 바이오 메카로 꼽힌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메디팜 산학융합단은 경쟁력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오메디컬학과, 제약공학과, 임상병리학과를 중심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및 화장품 관련 산업 등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산학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현장맞춤형 교육과정과 재직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기업체 간의 입체적인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취업 및 창업 강화를 운영하고,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창업공간과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멈추지 않는 도전,
아직 끝나지 않는 청주대학교의 변화들

특성화 교육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대학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산학협력과 관련한 대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산학부총장제다. 이로써 행정부총장은 교무와 입학, 학생, 국제교류 및 일반 행정 전반을 책임지게 되고, 신설된 산학부총장은 기존의 산학협력단과 인재개발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센터, 학생창업지원단을 총괄하게 된다. 이 밖에도 2014년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에 선정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은 문화콘텐츠학과와 국어국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5개 학과가 함께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창의력 넘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청주대학교의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 강화 전략은 우리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로 자리매김했다. ①



융복합 교육의 모범답안 'C-School', 관점과 통찰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보다



CK-1 사업단의 《Black & White Project Show》 전시회

지난 2월, 청주시 상당구의 숲속갤러리에서 우리대학 CK-1 사업단 소속 학생들의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C-School'이라 불리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이 1년 동안 진행해온 융복합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매체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5개 학과 학생들이 모여 '흑과 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 일련의 과정과 이야기는 성공적인 융복합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과 함께 전시를 준비한 서경원 교수에게도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특별한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서경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크리에이티브와 콘텐츠, 청주대학교를 잇는 'C'의 힘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CK-1)은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예술적 상상력과 기술적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디지털콘텐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어국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5개 학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C-School'을 구성했다. '청주대학교(Cheongju University)'의 'C'와 '크리에이티브(Creative) 콘텐츠(Contents)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의 'C'의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C-School'은 우리대학의 새로운 교육모델이자 인재양성모델이다.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 안에서 우리는 4년 동안 다양한 전공을 수학한 학생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발돋울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사업이 마무리되는 5차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대학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재 5개 학과 3학년생 26명이 처음으로 정규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총 5권의 교재가 개발되었고, 지난 2월 진행한 《Black & White Project》의 과정과 결과가 반영된 8개의 교안이 개발되어 곧 출판될 예정이다.

흑과 백을 관점과 통찰로 구분하여 연구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이번 《Black & White Project Show(이하 흑백 프로젝트)》는 2년여 동안 사업단 소속 교수들이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측정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이었지만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테스트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1년여 동안 《흑백 프로젝트》를 통해 나타나는 장단점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반영한 결과 좀 더 치밀하게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었다. 창의적 인재양성의 본질은 자기 전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전공 분야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 그 자체다. 이러한 측면에서 'C-School'은 실험정신과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파생시킬 수 있는 과정에 가치를 두었고, 그러한 이유로 이론적, 동질적 개념의 내포, 관계성과 상징, 다양한 현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흑백'을 깊은 논의 끝에 주제로 잡았다. 흑백을 크게 '관점'과 '통찰'로 구분하여 흑백의 '직관적인 해석'과 '본질적 탐구'로 나누어 연구했다. '관점'에는 외면적 의미 해석의 역할을 부여하고 '색'과 '형태'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으며, '통찰'에는 심층적, 내면적 상징 탐구의 역할을 부여하고 '환경'과 '시선'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전시형태와 보고서로 마무리했다.

함께 고민하고 어우러져 전공역량의 시너지를 일으키다

이번 전시가 학생들에게는 전공수업과는 별개로 새로운 전공처럼 병행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행군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그동안 전공이수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주어질 결과 어떤 형식과 과정을 통해 추출될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디렉션을 포함한 총 5개의 팀원들은 서서히 호기심과 탐구정신에 눈을 뜨더니 어느덧 프로젝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중간에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콘텐츠를 점검했고, 한 학기 동안은 실제 제작과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주어졌다. 서로 합의된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실제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냈다. 각자의 전공역량에 맞는 역할을 통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었으며, 다른 전공역량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합의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청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C-School'은 앞으로 청주의 지역성, 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C-School'의 3학년 교육과정에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찾고 있다. 향후 프로젝트는 이번에 얻은 소중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신감으로 '지역성'의 제반 문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지역 내 이슈를 선점하고 적절한 대안을 알려 우리대학, 더불어 'C-School'의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것이다. ①



다양한 생각과 시선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다

이번 <Black & White Project Show>에 참여한 25명의 학생은 1년 내내 '흑백'을 연구했다. 5개 학과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고, 저마다의 능력을 발현하면서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더해갔다.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로 정제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이성욱 학생에게도 이번 전시회는 사회에 진출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경험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성욱 학생
시각디자인학과 10학번
-
<Black & White Project Show>
전시 총괄 디렉터



<흑백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담당했다. 전시회 풍경과 작품이 담긴 400페이지 짜리 도록을 보니 정말 대단하고 멋지더라.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을 텐데, 학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었을 것 같다.

처음엔 5개 학과를 한 주제 안에 담아내는 것이 어려웠다. 차이점을 극복하고 다른 점을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배웠다는 점, 그리고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인 것 같다. 25명에 달하는 학생들 각자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엔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모두 처음 시도해본 것이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실험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경계를 허물고 융합한다는 시작점을 마지막까지 잘 이어 마무리한 기분이다.

융복합 교육의 한 형태로 진행된, 한 마디로 '집단창의성'의 결과였다. 프로젝트 주제를 도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지 궁금하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현상을 흠뻑려 놓고 거기서 다시 추려냈다. 먼저 130여 개 정도의 개념어들을 추출하고, 다시 그 사이에서 위계를 정한 뒤 개념어들의 내용을 함축한 후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했다. 그것이 '흑과 백'이었다. 흔한 듯하지만 낯설고, 단순한 듯 하지만 복잡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흑과 백을 외부적 접근으로 '색'과 '형태'로, 내부적 접근으로 '환경'과 '시선' 이렇게 4개의 개념어로 풀어냈다. 개념어를 확대하고 함축시키는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절감했다. 국어국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각각 한 팀이 되어 토론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기에 서로의 전공 분야도 알아갈 수 있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 참 좋았다. 이렇게 각 학과의 다양한 생각들과 탐구방식이 더해져 수많은 이야기기가 나오게 된 것 같다.

실제 전시회가 궁금하다. 주로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었는가.

색, 형태, 환경, 시선 이렇게 4개의 개념어 별로 구성된 팀마다 평균 6~7개의 작품을 완성했다. 개념어 정리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토론과 세미나를 반복하며 아웃풋을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과정은 도록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패널, 설치미술, 다큐멘터리, 카툰, 포스터, 시, 엽서, 명함, 책,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들이 탄생했다.

현재 휴학 중이고, 영상제작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어떤 꿈을 키우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지 궁금하다.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니 오히려 더 허기가 느껴졌다. 더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휴학을 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영상제작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학교와는 또 다른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지난 1년간의 경험이 얼마나 큰 밑천이 되었는지 알겠더라. 프로젝트 이후 어떠한 현상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이야기까지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런 점이 사람들과 교감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졸업하면 영상 분야나 시각디자인 분야의 디렉터로 일하고 싶다. 요즘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 행복하다.

명문名門 이름을 남기다

묵묵히 걸어온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의 이야기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열정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16

청인보 제1장
청석ALETHEIA 칼리지 초대 학장
한대균 교수



18

청인보 제2장
우리은행 신입행원
김영우 동문



20

청인보 제3장
청주대학교 탁구팀 창단 멤버
조안나 학생



청석ALETHEIA 칼리지 초대 학장



배움이란 무엇이며, 대학교육은 어떠한 길을 향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프랑스문학 연구자 한대균 교수는 말한다. '본질' 위에 바로 서는 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이다. 올해부터 우리대학 학생들의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신설된 청석ALETHEIA 칼리지 초대 학장으로 선임된 그에게서, 우리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변화들을 짚어본다.

지성의 뿌리, 태양과 물을 만나다

한대균 교수

청석ALETHEIA 칼리지 학장, 문학평론가

청주대학교는 올해 교양교육에 힘을 더하기 위해 청석ALETHEIA 칼리지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의 맥락에서 칼리지의 탄생을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무한경쟁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대학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양교육의 강화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취업에 비교적 취약한 인문사회계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정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인문사회학을 중심으로 한 교양과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종의 교양대학을 만들 필요성을 느낀 거고요. 청석ALETHEIA 칼리지는 크게 교양교육본부와 교양혁신 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교양교육본부에는 교양학부, 인성교육학부, 외국어교육부, 기초교육클리닉부를 두고 있으며, 교양혁신본부는 교수학습부와 교육질관리부로 나뉘는데, 교수와 학생 모두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 문학과 철학 등 교양 분야는 물론이고 인성까지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대한 교양교육의 그릇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알레테이아(Aletheia)'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Aletheia는 그리스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A-lethe-ia에서 '레테'는 인간이 죽은 후에 건너가게 된다는 '망각의 강'의 이름이지요. 여기에 반대의 의미가 있는 'A'를 붙여 우리가 망각의 강을 건너 이승에 오기 전에 알았던 완벽한 진리의 세계로 되돌아가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육이 잊고 있었던 학문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죠. --- 단순히 '진리'라는 단어 이면의 뜻을 듣고 보니, 청석ALETHEIA 칼리지가 그려나갈 미래가 한층 더 기대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학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요. 지식과 기술적인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사회로 나가 일하기가 쉽지 않지요. 학문을 한다는 것은 폭넓게 자신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지식에 덧붙여서 말이지요. 대학에서의 배움은 기술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찾아가는 여정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삶, 죽음, 행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하지요.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젊은 시절에 진지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 학생들이 20대부터 이러한 화두로 인생을 열어간다면 분명히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랭보 전문가'로 불리실 만큼 프랑스 문학 세계에 천착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몰입과 경험은 교수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프랑스는 익히 잘 알려진 '관용', 즉 '톨레랑스(Toleranc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이 말은 자기중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타인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는 '노마드(유목)'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와 타인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그의 말에 저는 더 공감합니다. 이런 면에서 랭보라는 시인은 선구자인 셉이죠. 서구의 관습적인 종교와 제도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으니까요. 그는 "인생은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더 큰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흐름을 교육에 접목하자면 전공을 벗어나 타 학문을 통섭하며 넓게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청석ALETHEIA 칼리지도 이러한 융복합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너무 급히 가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계에 한번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요즘 학생들은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독서를 하더라도 처세술이나 위로 받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는 책을 위주로 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근본적으로 가다듬어줄 책을 읽어야 합니다. 고전에 대한 탐닉은 젊은 날의 필수영양소입니다.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 본질에 대해 더 자주, 많이 논의하는 청주대학교가 되길 저 또한 기대해봅니다. ㉠

우리은행 채용시험 최종합격, 신입행원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도 자신의 자리를 찾는 열음의 성공담은 늘 가슴 벅차게 한다. 우리은행에 입행한 김영우 동문 역시 욕심껏 자신의 길을 찾고 뛰어난 뜨거운 청춘이다. 꿈을 찾아온 발걸음마다 성숙해지는 자신을 보았다는 그에서 청대인의 매력은 역시 열정이었음을 확인한다.

분주한 발걸음으로 달은 '지금 이 순간'

김영우 동문

우리은행 충북혁신도시지점 계장
경제학과 11학번

올해 우리은행에 입사한 220명 가운데 한 명이더군요. 우리은행 채용시험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면접도 네 번을 본다고 하던데요. 금융권 입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는데 어땠나요. 우리은행은 '열린 채용' 방식으로 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소개서로 필기시험을 대체했습니다. 그 대신 면접을 훨씬 길고 꼼꼼히, 다양하게 지원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방식이었죠. 자기소개 면접, 세일즈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이렇게요. 그 중 자기소개 면접이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집에서 스크립트를 크게 만들어 계속 연습했습니다. 면접 당일엔 밝고 당당한 표정으로 지금까지의 제 경험들을 자세하게 어필했구요. 덕분에 1차 면접은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다음 세일즈 면접은 우리은행의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카드를 판매해보는 테스트였어요. 대상이 4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이프 스타일 특징 중 두 가지를 잡아서 집중공략 했습니다. PT 면접과 토론 면접도 그동안 제가 삼성생명, 자산관리공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구요. --- 그럼, 졸업하기 전에 인턴ships을 경험했던 건가요? 이미 OJT(On-the-job Training)가 되어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을 것 같은데, 대학시절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경험을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이과생이었고, 전기공학대에 입학했었어요. 그런데 증권 분야에 계속 관심이 가더군요. 특히 투자 쪽이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 분야를 더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입학을 했어요.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금융캠프와 취업캠프에 참여했었는데, 모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컨설팅, 선배와의 대화 등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많이 팔았어요. 서울에서 하는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경제 분야 포럼 등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핀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또, 2013년엔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삼성생명에서 세일즈를 배웠고, 2014년엔 5개월 동안 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턴십도 했어요. 두 곳 모두 투자와 관련된 일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는 없었지만, 금융 분야의 배경지식을 넓히는 데는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 대학시절에 혼자 경제 포럼을 찾아 다닐 정도였으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젊은 날을 보낸 것 같네요. 그렇게 발로 뛰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궁금해지네요. 되돌아보면 김영우 동문에게 있어 대학시절은 어떤 시기였나요? 청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차 안에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답은 하나였죠. 내 미래가 궁금하다는 거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 마음 먹고 선택한 일은 꼭 이루겠다는 욕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스스로 정해 놓은 시간이 되면 먼저 일어나곤 했는데, 솔직히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 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 자꾸 거울을 보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 드디어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네요. 욕심나는 것이 있다면 열심히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본인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더 개발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저의 대학시절은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군요. '성숙'이라는 말이 새롭게 와 닿아요. 신입사원으로 활동하는 요즘이야말로 그 성숙함이 무르익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 12월 30일에 첫 출근을 했으니,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네요. 3개월 동안은 입출금 업무와 증명서 떼는 일을 했고, 지금은 가계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어요. 고객과 대면하는 일이라 흥도 나고요. 여러 자료를 분석하며 의견을 도출하는 일은 아직 비중이 적어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은행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져보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제 욕심을 부디 누가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요. 하하하. ①

청주대학교 탁구팀 창단 멤버



겨우 2.7g. 그 작고 가벼운 공이 그려내는 드라마는 실로 대단하다. 흰 공의 궤도를 따라 숨 가쁜 레이스를 펼치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차라리 예술이다. 이제 막 창단된 청주대학교 탁구팀의 조안나 선수는 10년 넘게 탁구공으로 드라마를 써온 주연배우다. 충청북도 내 유일한 대학 탁구팀에서 그녀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2.7g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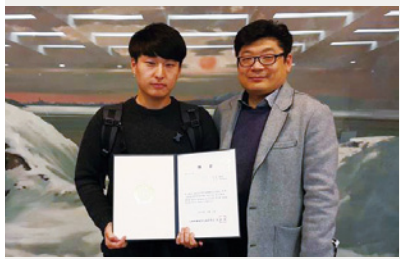
조안나 선수

청주대학교 탁구팀
체육교육과 1학년

탁구공 소리가 참 경쾌해요. 주머니 받거나 연습만 봐도 재미나네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라켓에 보이지 않는 실이 달려 있는 것만 같아요. 얼마만큼 연습해야 이 정도의 실력이 나오나요?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연습하는 거라... 쑥스럽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터 했으니까 벌써 11년째 탁구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경북 청송에 있는 진보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선생님께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 체육관으로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가봤더니, 그냥 탁구팀이 된 거 있죠. 그렇게 탁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하게 됐고요. 그때는 탁구대가 운동장처럼 정말 넓어 보였는데... --- 고3 때 전국 중고학생 탁구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던데, 이번에 청주대학교에서 탁구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반가웠겠어요.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한 대학 탁구팀이라고 하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계속 운동을 해왔으니까, 체육교육과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꼭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지도자나 스포츠 관련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천천히 진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탁구를 계속 해왔지만, 대학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놀랐고, 지금은 정말 좋아요. 탁구할 때 가장 집중하게 되고, 가장 자신 있는 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저 말고도 우리 팀 멤버인 김하연 선수도 탁구를 오래 했어요. 현재는 두 명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곧 팀원이 늘어나면 더 막강한 대학팀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전의 힘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연습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 (탁구대 옆 커다란 바구니를 가리키며) 이 바구니에 공이 몇 개나 들어있는 거죠? 이 공을 다 비워낼 때까지 연습하는 거 맞죠? 이렇게 작은 공이 날아가는 방향에 맞춰 몸을 날리고, 또 정확히 스매싱하고... 기술과 힘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한 300개 정도 들어갈걸요? 저는 수비전형 선수예요. 공격형은 빠르게 치는 게 중요하고, 저는 끈질기게 받아내야 해요. 뒤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이 가기도 전에 손이 먼저 뻗어나가기도 하고, 동시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몸이 움직이는 걸 의식하지 않게 돼요. 긴 랠리 끝에 포인트를 얻었을 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탁구라켓을 잡게 되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 자신의 성장에 만족하는 선수, 또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 이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선 연습만이 유일한 길이겠지요? 이제 청주대학교 탁구팀 에이스로 또 다른 삶을 시작했는데, 어떤 선수로 뛰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고 롤 모델로 삼는 선수가 있어요. 서효원 선수라고.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현재 마사회 소속이세요. 그 언니는 근화여고 탁구팀 전설이기도 했어요. 연습벌레에, 저처럼 수비전형인데 공격도 잘하는 멋진 선수죠. 너무 훈련을 열심히 해서 밤을 샌 적도 많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탁구에 푹 빠져 살아온 거 같아요.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쳐서 힘들 때마다 잡아주신 코치님, 선생님들처럼 팀원들끼리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 올 가을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충북 대표로 출전하게 될 텐데요. 10월이면 청주대학교 탁구팀의 맹활약을 기대해 봐도 되겠어요. 저희가 보내 유일한 대학팀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저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셔서 저희도 매일매일 자극을 받으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대학부 개인과 단체전에 출전할 예정인데, 4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팀이지만, 호흡만큼은 정말 자신 있거든요. 하연이하고 창단 멤버의 자존심을 걸고 잘 해내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①

We are young!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뜨거운 오늘을 살고,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청.대.인

방사선학과 11학번 채희창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주최
 제1회 방사선해부학경진대회 대상 수상

총 9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채희창 학생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차원 의료전용 프로그램으로 해부학 실습이 가능한 우리대학의 교육 커리큘럼 덕분에 대상을 수상했다.

연극학과 09학번 고동욱



제3회 대한민국 연극 브릿지 페스티벌
 남자연기상 수상

천재작가 마틴 맥도너의 <필로우맨>의 주인공 중 한명인 투폴스키 형사 역으로 남자연기상을 수상한 고동욱 학생은 극의 무게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팀



제2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사업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통해 도내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에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충북 음성의 특산품인 고추 테마골목 '멤멤 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누리 길' 등 아이디어를 결합한 우수 디자인을 제안했다.

연극학과 09학번 유용근



제3회 대한민국 연극 브릿지 페스티벌
 우수작품상 수상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우리대학 연극학과 유용근 학생의 연출작 <필로우맨>은 총 11개 대학들과 경쟁을 벌인 끝에 청운대 <다락방>에 이어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영화학과 10학번 황영훈, 13학번 이준수



제2회 중국 만봉림 국제단편영화제
 각각 2등상, 3등상 수상

2등상을 수상한 황영훈 학생의 작품 <뭇>은 청주 청원경찰서와 공동으로 제작한 인권영화이며, 이준수 학생이 연출한 <Mr. Hungry>는 대학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한 채 힘든 삶을 살아가는 20대의 어려움을 진정성있게 담아내 3등상을 수상했다.

몰입 沒入

진리를 탐구하다

학문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는 대학, 지성의 너른 광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4

특별대담- 융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IT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



28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중심,
 청주학연구원 개원



30

책에서 배우는 지혜
 책 속에서 뜨겁게 성장하라,
 청춘의 길을 찾아라



IT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



얼마 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은 전 세계적인 큰 이슈였다. 이번 대국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넘쳐났고, 인공지능(AI) 분야와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또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다양한 기능의 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우리 삶에 들어와 생활을 바꿔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대학의 국어학자와 공학자가 만나 IT기술과 인간의 관계 혹은 인문학과 IT기술의 융복합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국어국문학과 김희숙 교수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을 이끌어오며 다양한 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왔다.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왔으며, 현재 우리대학 인문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자공학과 차형우 교수 - 2012년에 이어 올해 다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임명됐으며, 우리대학 기업창업보육센터장도 겸하고 있다. 최근 산학협력 중점사업단에 선정된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산학협력사업단을 이끌어오는 등 충북의 IT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최첨단 기술을 오히려 인간을 위한 기술로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김희숙 저는 지난번 바둑 대결을 보면서 초고속 연
결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승리는 어쩌면 당
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세돌 9단이
그동안의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게임에 몰두하
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앞서가는 기술이라 해도
인간 본연의 힘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인공지능도 언어를 배울 순 있지만 언
어가 가진 절대적인 창의성, 상상력을 따라올 수 있
을까요? 과연 인공지능이 '세렌디피티(Serendipity)'
를 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형우 이번 대국이 10년 전에 열렸다면 아마 이세
돌 9단이 쉽게 승리를 거뒀을 겁니다. 이번에 거의
모든 대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딥 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통신시스
템과 계산능력, 메모리 같은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
이지요. 인간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에 가까워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처리속도와 메모리, 통신속도가
빨라져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해지면 인간을 뛰어
가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스마트폰끼리의 교
류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스마트폰
으로 자동차를 원격조정 하거나, 공장 또는 비닐하
우스 원격제어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 역시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봐
야겠지요.



김희숙 30년 전 대학원 시절에 <Artificial Intelligence>
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시대가 올까 했었는데,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네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기술이란 것은 인간의 편리성, 풍요로움
을 위해 개발되어 왔고 존재하지만, 한편으론 어떻
게 하면 위협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 떠나질 않더군요.

차형우 기술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은 가장 먼저 '사람
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엔지니어
뿐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 권력자들에
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요. 노벨은 자신이 만든 다
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하늘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
이 인문학적인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
니다. 공대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교육이 강
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겠지요.

감성과 스토리를 품은
첨단기술의 탄생에 대해 우리 시대의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희숙 바로 그런 점에서 인문학자들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는
새롭게 무언가를 발명했다기보다 융복합을 아주
잘한 것 아닌가요? 이미 존재해 있는 기술들을 본
인의 상상력과 추리력을 동원해 정말 놀라운 세계
를 창조해낸 거요. 그때 그에게 작용한 힘은 저는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기가 막힌 지점
에 적절한 것들을 불러 모을 줄 아는 능력이 대단했
던 거죠. 이처럼 앞으로의 공학은 인문학과의 교류
로 완성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최첨단의
학문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
한 과감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차형우 맞습니다. 기술이 선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기술이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
서는 인문학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
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인가보다 그 상위에 무엇을
담은 기술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스티
브 잡스처럼 빅 디자인도 잘해야 하고, 다양한 분
야에서 스몰 디자인도 잘해야 하는데, 인문학이 그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공학도들의 인
문학 공부 못지않게 인문학도들도 공학 지식에 관
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학문적 교류, 융복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대학이 융복합전공 통합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김희숙 얼마 전 우리대학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이
5개 학과 학생들의 협업으로 멋진 전시를 했어요.
어떤 분야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인문학에서는
이 스토리를 만드는 법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
지요. 스타벅스가 광고도 없이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 '스타벅스'라는 이름에도 스토
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백경(Moby Dick)>이라
는 책에 등장하는 항해사 '스타벅'에서 이름을 따
온 것이죠. 스타벅스 창업자 중 한 명이 소설 <백
경>의 애독자였다고 해요. 커피 한 잔에도 인문학
적인 배경이 들어있는 셈이지요. 이것과 저것이 만
나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융복합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 분야
에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차형우 모두들 융복합을 이야기하지만, 대학의 현
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존 학과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정
책적으로 진정한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
화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고 도전해야 새롭게 얻는 것이 있지 않겠습
니까? 다만, 새로운 모색이 성공할지 아닐지 예상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
나 그런 어려움을 안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IT기술이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위험성을 안고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희숙 요즘처럼 저성장시대에 천천히 준비하고 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길이 있다면 묵묵히 밀고 나가야죠. 결국 해내
는 학교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과물을 사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줄 수 있는 분야가
과연 어떤 분야인지는 충분히 모험하고 도전해야
만 알 수 있어요.

차형우 인간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
고 있어요. <아이언맨>이나 <터미네이터>, <아이, 로
봇> 등의 영화 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점점 더 현실
로 나타날 겁니다. 현재 기계가 사람의 능력 가운데
따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촉감과 후각,
미각이예요. 언젠가는 이런 기술도 개발되겠지요.
저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최첨단 기술 발전에도 기
여하고 싶고, 그와 동시에 선한 기술로 쓰일 수 있
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도 관심을 쏟고
싶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로봇의 머리에 인
간의 뇌를 조금 남겨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무척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희숙 앞으로 교수님과 제가 더 많이 교류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해야겠네요. 저는 인류가 행복하고 매
력적인 미래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④

청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걸음을 떼다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중심, 청주학연구원 개원

우리대학이 지난 3월 청주시가 공모한 '청주학(淸州學) 진흥사업' 수행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청주학연구원을 개원했다. 청주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우리 지역에 관한 모든 분야를 폭넓게 연구하게 될 청주학연구원은 앞으로 청주 고유의 색과 정체성을 찾아 청주의 새로운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淸州學

청주 지역이 가진 고유의 색과 정체성을 찾고, 지역 고유의 브랜드 확립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청주의 역사, 문화, 인물 등 전 분야에 걸친 자료 연구가 시작됐다.



취재협조 : 청주대박물관 박상일 학예사

지역학으로서의 청주학, 그 의미 있는 첫 출발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을 알아가려는 노력은 어찌 보면 개인의 삶에 보다 충실해지려는 노력과도 같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 역사를 탐구하고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에 관심을 두는 것은 세계화만이 최선인 양 몰입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학은 인생의 기초학문이 되기도 하고, 힘 있는 중앙(국가)을 이루기 위한 풀뿌리의 힘이기도 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지역학을 발판 삼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일찍 지역학 연구를 시작했다. 1999년부터 충북발전연구원 산하 충북학연구소를 설립해 충북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 인물 등 지역이 가진 인문자연 자원을 정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디어 청주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충북에서 시차원의 지역 바로알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청주시가 처음이며, 특히 지역 내 대학이 책임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대학 청주학 연구원이 처음이다.

청주학 연구 수행의 최적 기관, 청주대학교

지역학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상주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대학은 최적의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청주 흥덕사지 발굴을 비롯해 청주읍성, 남석교 연구 등을 진행해온 청주대박물관이 청주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활동과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주춧돌 삼아 올 3월 문을 연 청주학연구원은 앞으로 청주시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자료수집과 청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대대적인 연구활동에 나서게 됐다. 박문열 원장(문헌정보학과 교수)과 박상일 연구원(청주대박물관 학예사)을 주축으로, 지역문화에 관심있는 이들과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된 15명의 운영위원이 청주 고유의 브랜드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역학 연구를 통해 고유 브랜드를 발굴하다

매년 4천만 원을 지원받아 2018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청주 고유의 브랜드 발굴이다. 지역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는 큰 그림 아래 청주학연구원은 앞으로 청주학 강좌, 연구자료 편찬, 학술포럼, 시민 교양강좌, 문화유적 답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청주 지역의 강점을 찾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과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우리대학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청주학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터전인 청주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공부를 시작한 셈이다. 1학기 동안 청주학의 개념과 범위, 청주 역사의 변천과 특성, 청주의 인문지리적 환경, 청주의 지방제도 변천과 위상, 청주의 관방 체계와 발전, 청주사람의 형성과 발전, 청주인의 국난 극복, 청주의 불교문화, 청주의 고인쇄문화, 청주 지역의 관아와 고건축, 청주의 박물관과 도서관 문화, 청주학의 미래와 발전방향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들 강의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인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 등 현장에서 청주를 실질적으로 연구해 온 이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 학기가 마감되면 강의 내용을 책으로 엮을 예정이다. 대학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이다. 청주학연구원은 청주 지역과 우리대학 사이에 단단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청주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단단히 엮어가게 될 것이다. 청주를 다시 알고, 새롭게 알아가는 청주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청주시에는 고유한 색깔을 입혀주는 것과 함께 학문 및 경제 분야 등에 있어 청주학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청주에 관한 모든 것은 청주대학교 청주학연구원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④

호텔경영학과
손일락 교수 편

책 속에서 뜨겁게 성장하라

청춘의 길을 찾아라



청년시절, 손일락 교수에게 있어 책은 유일한 길이자 희망이었다.
글로벌 매너 전문가라는 명성 뒤엔 오랜 벗이자 지혜의 샘이었던 책이 있었다.
책 속에서 만난 길은 스스로를 버티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며,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는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책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 글로벌 매너 전문가

손일락 교수는 글로벌 매너 분야 전문가다. 우리나라에 국제화 물결이 본격적으로 일기 훨씬 이전부터 '테이블 매너'란 말을 꺼내 들고 음식문화와 예절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외식사업론>이라는 과목을 개설했고, 교양 과목으로 개발했던 <현대인과 국제매너>는 현재 150개 대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테이블 매너, 글로벌 매너,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성장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오랜 습관, 스크랩과 책 읽기 덕분이었다. 스스로를 뺏속까지 '호텔리어'라고 말하는 손일락 교수는 젊은 시절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모든 기사를 스크랩해왔다. 그의 연구실 책장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스크랩 파일 들엔 수십 년 동안 밀줄을 그으며 모아온 음식에 관한 자료들이 빼곡하다. 마치 음식문화의 연대기를 보는 것 같다. 예기(禮記)에서 '예절은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했던 것처럼 음식에 대한 관심은 '매너'라는 주제로 옮겨갔고, 열심히 스크랩을 하며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책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욕심을 따라 어느새 그는 독서광이 되었다.

“그렇게 자료들을 모으고 책을 읽다 보니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더 흥미를 느끼는지도 알게 되었고, 이거구나! 무릎을 치는 순간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저는 책 속에 미래가 있다는 것, 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스로의 길과 미래, 책에서 구하고 찾아라

손일락 교수의 독서량은 상당하다. 수시로 인터넷 서점 검색창에 관심 키워드를 쳐보는 것은 그의 또 다른 습관. 관심이 머무는 분야에 대한 국내의 신간은 거의 다 찾아 읽는다. 최근 관심의 울타리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는 '진화생물학'은 강의시간에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활용할 정도로 그에겐 무척 흥미로운 분야다.

“젊었을 땐 소설과 시에 빠져들고, 인문사회계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짧다는 생각에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독서를 하기보다는 관심 분야에 더 몰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길 바랍니다. 만화든 고전소설이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책과 친해져야 해요.”

더 많이 읽으라고, 제자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게 된다는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치열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한다. 누구나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대학시절은 그걸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교 앞에 카페와 노래방은 늘어나는데, 작은 책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세태가 서운하고, 점점 작아지는 책 시장도 안타깝다.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 이 사회도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와 조우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부디 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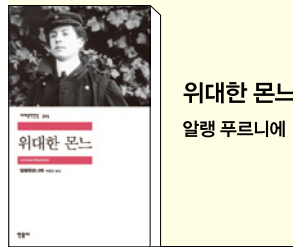
방황의 시절, 위로와 희망이 될 청춘의 독서

이런 그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무엇일까? 아니, 그는 어떤 책에서 삶의 힌트와 에너지를 얻어왔을까? 손일락 교수는 망설임 없이 연구실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을 뽑아 들었다.

“헤르만 헤세의 <Alone(Allein)>이란 시가 수록된 시집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거리와 길이 나 있는데 마차로 갈 수도, 걸어갈 수도 있다. 들어서 갈 수도, 셋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걸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런 내용의 시였는데, 지금 읽어도 큰 울림을 줍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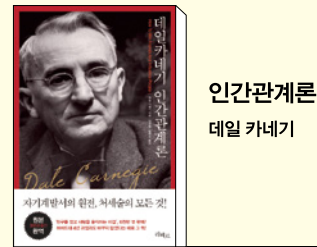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멤버인 아들 손동운에게도 건네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그가 열 번도 넘게 읽었을 정도로 좋아하는 책이다. 저자의 열정적인 인생역정이 그에게 강한 자극이 되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알랭 푸르니에의 <방황하는 청춘>을,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싶다면 <메이팅 마인드>, <맨워킹> 등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그에게서 방황의 시절 따뜻한 위안이 되는 독서의 힘을 배운다. ④

손일락 교수가 추천하는
청춘의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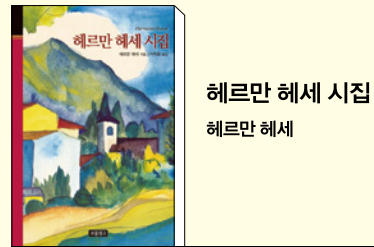
위대한 몬스
알랭 푸르니에

청춘의 모험과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낸 이 작품은 유년 시절을 향한 동경, 잃어버린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모험,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나 그러한 모험을 갈망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청춘의 꿈과 환상들을 매혹적으로 그려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향하는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가 이후 현 제목으로 재출간됐다.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가 좌우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하다. 원제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인간관계의 핵심 비결, 사람을 다루는 테크닉,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법, 상대를 변화시키는 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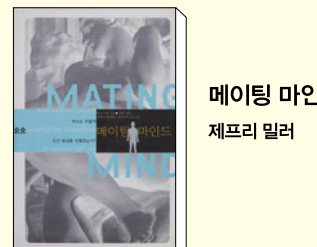
헤르만 헤세 시집
헤르만 헤세

우리에게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싯다르타> 등으로 유명한 독일의 대표작가 헤르만 헤세는 소설뿐 아니라 시와 그림에도 재능이 뛰어났다. 이 책은 헤세의 시 1,400여 편 중에서 105편을 엄선했던 것으로, 손일락 교수의 추천시 '혼자(Alone)'를 비롯하여 인간의 감정과 이성에 잔잔하지만 폭넓은 공감을 줄 수 있는 시와 그가 직접 그린 수채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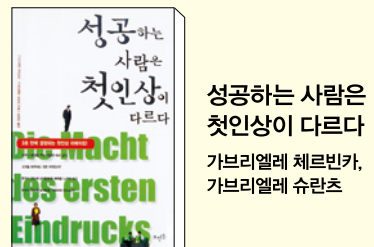
맨워칭
데즈먼드 모리스

이 책은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가 인간의 행동 즉 다양한 민족들의 독특한 일상적 행동과 태도를 사진과 함께 면밀히 고찰한 결과물이다. 동작과 제스처, 자세방향, 섭식행위, 스포츠 행동, 휴식 행위 등 인간의 여러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과 몸짓들이 얼마나 다양한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전달한다. '인간 행동을 관찰한다'는 부제에서 보듯 인간을 동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메이팅 마인드
제프리 밀러

부제는 '섹스는 어떻게 인간 본성을 만들었는가'이다. 생물학과 진화심리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이 책은 지금까지의 진화론적 입장을 완전히 뒤집으며 성선택론을 진화의 주된 동력으로 본다. 저자는 유성생식하는 동물들과 인간의 성선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인간의 성선택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진화시켰는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첫인상이 다르다
가브리엘레 체르빈카, 가브리엘레 슈란츠

슈란츠&체르빈카 OEG의 공동 설립자이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인 두 저자가 말하는 단 3초 만에 결정되는 첫인상 리메이킹을 위한 조언들로 구성된 책이다. 누구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첫눈에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기반하고 실생활에서 멋지고 성공적인 첫인상을 만드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 實踐

세상을 밝히다

사회와 지역에 봉사하는 공존의 가치와 드넓은 세계를 꿈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는 청주대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34

지역과 어깨동무
중앙동 소나무길 프리마켓 후원하는
청주대학교



36

지식과 재능의 선순환
청대인,
전통시장의 청년 홍보전략가로 나서다



38

나의 세계문화 스퀘기
영국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관광경영학과 오승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마당에 청춘의 재능과 끼를 더하다

중앙동 소나무길 프리마켓

우리대학은 그동안 WOW 기업도보대장정, 게릴라 가드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및 공헌활동을 이어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청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소나무길 프리마켓의 후원대학으로 활동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쌓아갈 예정이다.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변모해가는 청주시에 젊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예술시장 + 베틀시장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에 조성된 소나무길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장이 열린다. 직접 만든 가방, 드라이플라워 액자, 머리핀, 향초, 인형부터 중고물품까지 알록달록하고 예쁜 물건을 진열해 놓은 테이블 행렬이 거리를 가득 채운다. 구경 나온 사람들 사이로 기타 치며 노래하는 젊은 이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마치 서울의 홍대 앞 거리 풍경을 보는 듯 하다. 2011년부터 시작된 소나무길 프리마켓은 200여 명의 등록 작가들이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예술시장이자 중고생활 용품을 팔고 사는 베틀시장이다. 이 장터는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일궈낸 큰 성과 중 하나다. 도시개발로 침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해 지금은 청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에 우리대학 학생재능기부단도 곧 합류해 청주대학교만의 젊은 기운을 더할 예정이다.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는 도시재생 현장 + 청주대학교 학생재능기부단

중앙동은 1960년에 개관한 중앙극장을 중심으로 한때 청주 시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던 거리였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고, 도심 외곽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자 긴 상점가에 하나 둘 빈 점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곧 주민들이 나섰다. 쇠퇴해가는 동네를 되살리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전문가, 지역행정 담당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만들었고 쇠퇴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특성화, 주민공동체 회복 등을 기치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소나무길 프리마켓은 이러한 심사숙고의 과정에서 태어난 소중한 '마당'이다. 이 마당에 우리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평소 청주 지역의 문화활동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던 경제학과 김영배 교수가 중앙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권순택 회장을 만나면서부터였다. 프리마켓에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펼쳐 보이게 하면 어떨까란 생각을 공유했고, 청주대와 서원대, 충북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권순택 회장은 청주의 정체성을 지닌 중앙동 소나무길에서 청주를 대표하는 전통사학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들이 소나무길을 젊음의 공연장으로 꽃피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중앙동은 소나무길 프리마켓 말고도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청춘버스킹페스티벌, 사진콘테스트, 찾아가는 재즈콘서트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일년 내내 사람과 흥으로 북적거리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렇듯 의미 있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빛나는 재능과 열정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Mini Interview

문화의 힘으로 학생들이 날개를 펼치기 바랍니다

경제학과 김영배 교수



소나무길 프리마켓 행사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청주대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퍼포먼스가 가능한 학생들은 공연을 하고, 경제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엔 행사를 진행하는 스텝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재능기부단을 꾸리고 있는데, 학생지원팀과 학생복지팀과의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프리마켓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무조건 열정페이로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정의 장학금도 준비 중입니다.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게 되고요. 무엇보다 매주 타 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WOW 기업도보대장정'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중앙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역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청주는 제 고향이니까요. 런던에서 석·박사를 마친 뒤 그곳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항상 대한민국, 그리고 청주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이든 고향에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다시 돌아와 보니 청주지역이 문화적, 환경적 변화나 발전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뭔가 청주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좀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소나무길 프리마켓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될까요? 지역의 대학생들이 연대해서 근사한 콘텐츠를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중앙동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좀 더 알게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체성을 깨닫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한 거죠. 또, 이 곳이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우리대학이 힘을 더했으면 합니다.



청대인, 전통시장의 청년 홍보전략가로 나서다

청주 북부시장 영상제 공모전 리포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대학 학생들이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청주 북부시장의 디지털 홍보콘텐츠 개발을 위해 열린 영상공모전에 우리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눈부신 결과를 거둔 것이다. 젊음과 전통이 상생하는 재래시장으로 변신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전략을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는 젊은 그들의 꿈과 노력에 대한 보고서, 지금부터 시작한다.

청주 문화만남 북부시장 영상제, 그 서막이 열린다

청주 북부시장은 우리대학교도 인접한 청원구 우암동에 위치한 청주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한곳으로, 그간 젊음과 전통이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기울여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청주 북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은 전통시장의 디지털 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청주 문화만남 북부시장 영상제- 쓰리데이즈' 작품공모전을 개최했다. 북부시장 내에서 3일 동안 촬영을 진행하여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다큐, 단편 영화, 광고홍보, CF, 뮤직비디오 등) 개발을 목적으로, 북부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징과 상인 또는 시장의 스토리를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 기획안을 1차로 먼저 접수하고, 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안을 가지고 상인회와 사업단과의 협의 후에 촬영을 진행하는 형태로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작된 최종 완성작들 가운데 대상 1팀과 금상 2팀, 은상 2팀, 동상 2팀 등의 수상작이 가려졌고, 시상식과 상영회가 같은 날 함께 열렸다.

총 4편의 수상작을 낀 청대인의 재능과 열정

1월 11일, 1차 기획안 심사에 합격한 7팀의 영상 콘텐츠 제작발표회가 진행됐고, 이를 뒤인 1월 13일부터는 북부시장 내에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다. 3일이라는 짧은 촬영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팀은 분주히 움직여야 했다. 북부시장이 가진 고유의 풍경 위에 청년들의 톡톡 튀는 스토리가 영상으로 결합하는 과정은 공모전 관계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 드디어 2월 3일, 북부시장 시장문화교육실에서 시상식과 상영회가 동시에 거행됐다. 총 17팀의 공모 기획안 가운데, 7팀의 작품이 영상물로 완성되었고,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우리대학 '레디 액션'팀의 <춘향이 나르사>가 차지했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어, 중국어 버전으로 제작되어 시장의 대외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금상에는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 동아리 'LCL Film'팀의 <해피 바이러스>, 은상에는 광고홍보학과 'GUTZ'팀의 <흥(흥)민(민)정(정)음(음)>, 동상에는 문화콘텐츠학과 '동네형들'팀의 <북부시장 사람들>이 각각 선정됐다. 특색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고객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주최 측의 의도는 성공적이었다.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북부시장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는 "전통과 젊음이 상생하는" 북부시장의 브랜드를 한층 더 견고하게 완성해가고 있다. ④

주요 수상작

대상_ 춘향이 나르사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 성춘향과 이몽룡이 북부시장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체험하며 데이트를 즐기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세대에겐 전통시장이 가진 친근감을, 기성세대에게엔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으로 각각 제작되어 눈길을 끌었다.

금상_ 해피 바이러스 '청주 북부시장에는 해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상인 DJ와 북부시장의 다양한 문화활동, 이벤트 행사 등의 풍경을 통해 즐거운 전통시장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웃음꽃이 가득한 북부시장과 상인들의 실제 인터뷰를 함께 구성해 현장감 넘치는 시장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은상_ 흥(흥)민(민)정(정)음(음) 청주 북부시장의 매력을 '흥(항상 흥에 가득한 시장 분위기), 민(시장을 채우는 사람들), 정(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가득 찬 시장), 음(같은 목소리로 시장을 메우다)'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눠 홍보한다. 정이 넘치는 시장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이벤트,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 상인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습 등을 2분여의 짧은 영상 안에 효과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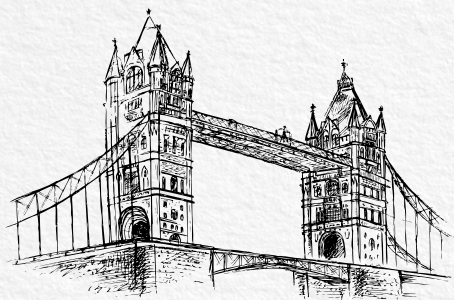


영국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우리대학 국제교류팀에서는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교류를 맺고 다양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영국 인턴십 프로그램은 영어의 본고장 런던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해 런던 트라팔가 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Regus London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단기 Londoner의 꿈을 이루고 돌아온 오승희 학생에게서 생생한 영국의 기업문화 체험기를 들어보았다.

내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치관 발견하기

‘YOLO’.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라는 뜻이다. 1학년 때 학교에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새크라멘토 주립대학으로 8개월간 파견 학생을 다녀온 뒤 이런 상황에 닥칠 때마다 쓰기 시작한 말이다. 항상 도전하길 좋아하는 내게 ‘YOLO’는 그런 나의 가치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했다. 사실 미국에 가기 전까지 나의 영어실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항상 꾸준히 공부해왔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스스로 혼신을 다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미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영어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미국을 다녀온 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일해보기로 결심했고, 영국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학교성과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들뜬 마음도 잠시,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영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현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려면 학생비자(Tier 4)가 필요했다. 영국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아이엘츠(IELTS) 5.5 이상의 점수를 만들었고, 그 밖의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번뿐이니까, 런던으로 직진!

오승희
관광경영학과 4학년

4개월 간의 영어집중교육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지기

드디어 출국! 인천공항에서 출발한지 약 11시간 만에 드디어 런던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예약한 한인 민박집에서 3일 동안 집을 알아보고 머물렀다. 처음 방문한 낯선 곳에서 낯설지 않은 한국 밥을 먹으면서 3일 만에 혼자만의 힘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다행히 학교 근처에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했고, 그렇게 영국에서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됐다. 인턴십에 앞서 런던 중심가에 있는 Regent’s University에서 16주 동안 영어집중교육을 받았다. 오전에는 일반 영어수업, 오후에는 비즈니스 영어수업을 들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레벨에 맞는 반에 배정받아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비즈니스 영어수업 시간에는 미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비즈니스 영어표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는 실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 영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단 한번의 아르바이트 경험조차 없었다. 그래서 어학연수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약 한 달간 일본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법, 고객들과 소통하는 법 등을 미리 익혔다. 그렇게 4개월 동안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인턴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본격적인 인턴생활! 영국의 따뜻한 기업문화 경험하기

나의 희망 분야인 마케팅부서에 보낸 이력서를 보고, ‘Regus London’이라는 회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Regus London은 한국의 서울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지사를 둔 영국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센터다. 런던에서 관광객으로 가장 붐비는 지역 중 하나인 ‘Trafalgar Square’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 내가 주로 했던 일은 전화연결, 이메일 작성, 그리고 회의실 준비 등의 업무였다. 회사의 규모가 커서 매일같이 뛰어다녀야 했고, 업무도 많은 편이라 항상 바쁘게 움직였다. 초반엔 실수도 있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아 용건과 이름을 받아 적은 후 연결을 하려는데, 고객이 전화를 건 사람의 성은 왜 안 물어봤냐며 내게 심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같은 부서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를 해주는 바람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일로 상사가 나를 불렀을 때도 잔뜩 긴장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정작 그분은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실수에 대한 질책보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영국에 가기 전, 서울에서 일하는 지인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시설도 좋았다. 하지만 열정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라 기대했던 사무실은 왠지 삭막했고, 알 수 없는 압박감에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근무환경에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영국회사는 어떨까 더 궁금했다. 8주 동안 근무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매주 금요일마다 ‘초콜릿 데이’를 열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초콜릿들을 회사 접수처에 비치해두는 그들의 문화였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건물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과 주말을 맞이하는 기쁨을 초콜릿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다. 초콜릿을 하나씩 가져가면서 나누게 되는 소소한 대화들로 모두 기분 좋게 주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참 생소한 기업문화가 아닐 수 없다.

6개월 단기 Londoner로 살아보기, 미션 클리어!

지난 영국 인턴십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보람차고 값진 6개월이었던 것 같다.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말만 쓰게 될까 걱정되어 처음 만나자마자 영어로 대화하자고 부탁도 하고, 심지어 혼잣말도 영어로 했던 기억이 난다. 잠꼬대를 영어로 했을 정도로 독하게 공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왜 어른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현지인들과 영어로 생활한 경험은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혹시라도 지금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걱정 말고 ‘YOLO’를 외친 후 자신이 가장 도전해 보고 싶은 모험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①

영국 인턴십 프로그램

- 지원자격** 총 평균평점 2.6 이상이며, 영어회화 구사 능력이 중급 이상인 본교 재학생
- 교육내용** 영국 인터네셔널 어학연수센터(Regent’s College London 소재)에서 영어집중과정(8주~12주)을 마친 후 런던 현지 기업이나 박물관, NGO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무급)
- 학점인정** 현지 수료증으로 최대 12학점 인정, 5개월 이상 최대 18학점 인정
- 장학지원** ① 연수 수수료 후 본교 등록 시 한 학기 등록금 50% 감면 (연수학기가 졸업 전 최종학기인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
② 파견 후 수확보조금 150만 원 지급



스무 살
수줍음이 피어나듯
용기가 뿔쳐나오듯

세상 모든 꽃이 소리 없이 핀다지만
이토록 황홀한 계절에 피어나는 꽃은 달랐다네.
겨우내 아껴놓은 이야기들을
팝콘처럼 터뜨렸다네.

스무 살 수줍음이 피어나듯
스무 살 용기가 뿔쳐나오듯
봄 하늘에, 봄 땅 위에
날 좀 보라고, 날 좀 봐달라고
쉽 없이 노래했다네.

소통 疏通

오늘을 전하다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넘어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중심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2

단신 뉴스
청주대, 노사공동 선언
합의문 발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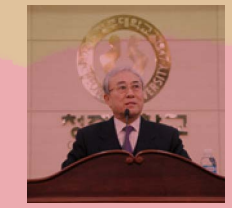
44

인물 뉴스
도정님 교수,
제16대 한국발레협회장 선출



46

명사들과의 만남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
명사특강 외



노사공동 선언 합의문 발표



우리대학 노사 양측이 학교발전 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3 월 14일 우리대학은 대학본관 2 층 대회의실에서 김병기 총장과 박용기 노조지부장, 대학 구성 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 상 타결에 따른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대학의 발전과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성실히 이행

하는 등 무분규·무파업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는 또, 우리대학이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화합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노조는 대학행정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학생이 행복한 대학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우리대학이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노조의 쟁의행위는 545일만에 모두 종료됐다.

전기학위 수여식 거행



우리대학의 2015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이 지난 2월 19일 대학원·보건의료대학 청암홀에서 열렸다. 이날 우리대학은 학사 2,312명, 석사 64명, 박사 2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혜원 동문은 영예의 수석졸업자로 선정돼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상을 수상했고, 회계학과 임현주, 중어중문학과 김하영, 전자공학과 김상현, 체육교육과 임희석, 화학학과 박선주, 간호학과 문다혜 동문이 각각 총장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55명도 박사(7명), 석사(15명), 학사(33명) 학위를 수여받았다.

'늘·품·잡' 취업동아리 발대



우리대학이 지난 2월 3일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학생 및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품·잡(Job)' 취업동아리 발대식을 갖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늘·품·잡(Job)'이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인 '늘품'을 잡(Job)에서 구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재개발원은 동일기업과 직무, 업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아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번에 8개를 선정된 뒤 동아리당 1학기에만 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 기업탐방과 선배초청, 관련 공동학습을 수행해 취업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학교 측은 앞으로 동아리 수를 30여 개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총장상과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재개발원, 밥상머리 직업예절교육 실시



우리대학 인재개발원이 지난 3월부터 '밥상머리 직업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옛 선조들의 '밥상머리 교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인성 바른 청주대인' 양성을 목표로, 각 학과별로 신청을 받은 뒤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이번 학기에만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교 측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피자 등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외부 비즈니스 매너 강사를 초빙해 직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예절교육을 익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우리대학이 지난 2월 23일 석우문화체육관에서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 2,94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입학생 선서, 총장 환영사, 학교 배치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병기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주대는 '학생제일주의'를 대학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자긍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활용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대-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학협력 체결



우리대학은 지난 2월 25일 미래창조관 세미나실에서 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기 총장과 이선복 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 산하 30여 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학 측은 기업체의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등 교육, 인력양성 등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주대-상당보건소, 치매예방 업무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지난 3월 9일 '치매 서포터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당보건소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간호학과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치매체크 앱을 활용, 상당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여부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검사를 받은 노인이 인지저하자로 확인될 경우,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치매예방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KBS 일일 드라마 연기자 오디션 실시



KBS 드라마의 간판, 이덕건 PD가 우리대학을 직접 찾아 오디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디션은 이덕건 PD가 연출할 일일 드라마의 연기자를 찾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날 오디션에는 영화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총 30여 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각 15분 가량씩 제출한 프로필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본 연기를 선보였다. 이처럼 KBS 드라마를 대표하는 이덕선 PD가 대학을 찾아와 오디션을 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영화학과 어릴선 학과장 등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청주대-충북문화재단, 교류협력 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지난 4월 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재)충북문화재단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기 총장과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 측은 앞으로 우리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지역문화 예술현장에서의 인턴십 활성화 및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자원봉사인증, 현장실습학점제 등과 연계해 지역문화 예술현장의 스태프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주관 2016 그린캠퍼스 선정



우리대학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16 그린캠퍼스'에 선정됐다. 그린캠퍼스는 정부의 친환경 성장정책을 대학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우리대학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4천만 원씩 모두 1억2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학교 측은 조만간 그린캠퍼스 추진팀을 구성한 뒤 미래의 친환경 인재양성을 위한 친환경 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수소식



도정님 교수, 제16대 한국발레협회장 선출
연극학과 도정님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열린 한국발레협회 임시총회에서 임기 3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도정님 교수는 국립발레단 단원, 청주시립예술단 자문위원, 한국무용과학회 회장, 한국발레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한국발레협회 공로상, 2010년 한국무용과학회 공로상, 2011년 한국발레협회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오데레사 교수, 세계 최초 트랜지스터 기술 개발
반도체공학과 오데레사 교수가 절연물질에서도 전기가 흘러 스위치가 동작하는 반도체 센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극미량의 유해가스를 선택적으로 검출하는데 필요한 센서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는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한편, 오데레사 교수는 '방막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방법' 등의 3가지 특허 출원과 함께 국내외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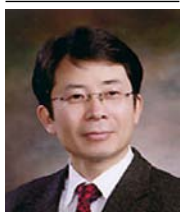
정상수 교수, 한국인 최초 원 쇼 광고제 심사위원 위촉
광고홍보학과 정상수 교수가 프랑스의 칸(Cannes) 광고제, 런던 디앤에이디(D&A)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히는 미국 원 쇼(The One Show) 광고제에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이번에 정상수 교수는 대학생 부문인 영 원스(Young Ones) 본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정상수 교수는 서울영상광고제 집행위원장, 부산국제광고제 집행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박승두 교수, 국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및 주제발표
법학과 박승두 교수가 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이 4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회생 제도의 현 상황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회법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날 박승두 교수는 '학계에서 본 기업회생 제도의 현황과 전망'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다.



정정목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행정학과 정정목 교수가 지난 3월 14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3월 30일까지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9명의 운영위원과 7명의 시정권고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정정목 교수는 이미 2015년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규남 교수,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자문위원 위촉
공예디자인학과 이규남 교수가 청주시와 괴산, 증평, 진천, 보은군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2월 24일 열린 제1회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자문 및 주민협의회에서는 전문가, 작가,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5개 시군의 공예마을과 공예작가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적으로 특화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임승빈 교수, 충청일보 신춘문예 심사위원 참여
국어국문학과 임승빈 교수가 지난 2월 진행된 '2016 충청일보 신춘문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신인 작가들의 수작들이 대거 몰린 이번 공모전에는 1,053명의 작품이 접수되어 단편소설, 동화, 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임승빈 교수는 시 부문의 심사평을 통해 "본심으로 넘어온 31명의 작품을 읽으며, 수도 없이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래근 교수, 충북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참여
음악교육과 이래근 교수가 지난 2월 19일 청주아트홀에서 열린 제24회 충북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창작곡을 발표했다. 이번 연주회는 독일 다름슈타트 음대 학장인 코어드 마이어링(C.Meijering) 교수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함께 참여해 완성한 창작곡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자신들의 작곡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배 교수, 청주시문화진흥재단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추진단 추진위원 위촉
경제학과 김영배 교수가 지난 2월 15일 발족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추진단'의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재단과 함께 지역 문화기업 발굴과 '2016년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재단 측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기업·상품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일교 동문, 2016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수상
임일교(산업디자인학과, 91년 졸업) 동문이 대표로 있는 패키지 전문 브랜드 '크리팩'이 2016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 대상에서 패키지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임일교 동문은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기능올림픽 디자인 부문 대표로 선발됐고, 한국현대미술대전 대상, 서울 일러스트대전 금상, 상공부굿 디자인상 등을 수상했다.



남동우 동문, 청주 우리신협 신임 이사장 당선
남동우(도시계획학과, 2011년 졸업) 동문이 지난 2월 25일 열린 청주 우리신협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당선됐다. 이날 이사장 선거에서 총 1,740표 가운데 1,065표를 얻어 당선된 남동우 동문의 임기는 2월 26일부터 4년간이다. 한편, 남동우 동문은 세광고와 우리대학을 졸업하고 청주시의회 의장,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우리신협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



유재풍 동문,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유재풍(법학과, 80년 졸업) 동문이 지난 2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사회발전 기여해온 유재풍 동문은 현재 법무법인 청주로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며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총재, 청주YMCA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연규철 동문, 청주 성동신협 상임이사 선임
연규철(상학과, 76년 졸업) 동문이 청주 성동신협 협동조합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충북은행 홍보실장을 거쳐 청주시내 지점장으로 퇴임한 이후 우리대학 총동문회 사무총장, 삼성생명 고문 등으로 활동해온 연규철 동문은 조합원 관리 등에 남다른 노하우를 인정받아 성동신협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권득용 동문, (사)한국문인협회 대전지회장 선출
권득용(산대학원, 90년 졸업) 동문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대전지회장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월 13일 대전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제14대 회장 선거에서 권득용 동문은 전체 유효투표 233표 중 146표를 획득해 앞으로 2년간 더 대전문협을 이끌게 됐다. 신임 권득용 회장은 ㈜푸른환경 회장, 대전예총 수석부회장, 대전문화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시집 <백년이 지나도>, <아버지, 인연의 아픈 그 이름이여> 등을 출간했다.



이승희 동문, 개인전 <TAO>전 개최
이승희(공예디자인학과, 86년 졸업) 동문이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청담동 박여숙화랑에서 개인전 <TAO>전을 열었다. 조선백자를 평면작업으로 재창작한 도예가 이승희 동문은 2008년 도예의 성지라 불리는 중국 장시성 징더전으로 건너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3차원 도자기를 2.5차원 평면도자회화로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이영기 동문, 충주청년경제포럼 신임 회장 취임
이영기(조경학과, 2015년 졸업) 동문이 지난 1월 28일 충주 더베이스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충주청년경제포럼 신임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2009년 창립된 충주청년경제포럼은 충주에서 활동하는 29명의 젊은 기업인, 경제인,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된 청년경제단체다. 신임 이영기 회장은 ㈜한솔조경, ㈜대한조경 등 4개 법인 이사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동은 동문, 충청대상 지역경제 부문 대상 수상
김동은(경제학과, 86년 졸업) 동문이 지난 3월 4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충청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에서 충청대상 지역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동은 동문은 2012년부터 LG화학 오창공장 주재임원으로, 올해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공장 주재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청지역 경제발전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크게 기여했다.



송기복 동문, aT 대전세종충남지역 본부장 취임
송기복(법학과, 85년 졸업) 동문이 지난 1월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신임 송기복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식품산업의 육성과 대전충남지역 우수농수산식품에 대한 국외시장 개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복 본부장은 1985년 aT에 입사해 그 동안 법무부장, 충북지역본부장, 화훼공판장장, 본사 유통조정처장 등을 지냈다.

2016년 3월 ~ 4월

2016. 3. 2

학생이 행복한 대학

김병기
청주대학교 총장



우리대학 김병기 총장은 지난 3월 2일 청암홀에서 올해 첫 명사초청 특별강좌 강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총장은 “모든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학생중심에 두는 등 오로지 학생만을 바라보고 학사 및 행정을 운영해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실력을 키워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전기 마련을 위해 한해 동안 전체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30억 원의 적립금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교육, 취업, 행정서비스 등에서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만큼 풍부한 교양 함양과 인격도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2016. 3. 9

위기의 시대를 사는 나는 누구인가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



동양일보 조철호 회장이 지난 3월 9일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에서 ‘위기의 시대를 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인식해 대학시절 동안 자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칼끝에도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의 시대에는 준비하는 자만이 희망의 줄을 당길 수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활자로 된 것을 많이 읽고, 제대로 대화하고, 매사에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지금 현재가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인 만큼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호 회장은 우리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연합통신사(현재 연합뉴스) 기자 등을 거쳐 1991년 동양일보를 창간했으며, 현재 한국시상송전문가협회 회장, 충북예총 회장을 맡고 있다.

2016. 3. 16

미래사회와 대학생의 꿈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지난 3월 16일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기존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송광용 전 총장은 “지식이나 정보가 급속히 팽창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전의 패러다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물망과 같은 조직인 미래사회에서는 얼마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성을 기르고 만남의 관계를 폭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광용 전 총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석·박사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서울교대 총장, 전국교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 3. 23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지난 3월 23일 청암홀에서는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의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열렸다.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강연에서 손동현 원장은 “시간과 공간적인 관심을 넓히고 매사를 멀리 보면서 기획해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를 예상하려면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내가 왔는지 알아야 한다”며 “근대의 지적 지형과 탈현대의 디지털 혁명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해 행복해지려면 지금 현재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은 서울대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육군사관학교 철학과 교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국대학교교양교육협의회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연구재단 이사, 2016세계인문학포럼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6. 3. 30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대학생생활

배상훈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장



배상훈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장이 지난 3월 30일 청암홀에서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대학생생활’을 주제로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배상훈 센터장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과 삶에 대한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전공지식, 기초역량 등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대학은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 시기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과 일, 건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3가지와 함께 성공의 기본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반도 밖에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부지런히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국제화 역량을 키운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상훈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장관 비서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 4. 6

삶을 이끄는 힘

김수영
베트남 하이퐁 한인회장



지난 11월 25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는 김수영 베트남 하이퐁 한인회장의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수영 회장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일에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가난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현재는 최선을 다한 결과 약속을 지키는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비행기로 완구를 납품하는 등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직원들과 동고동락한 결과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영 베트남 하이퐁 한인회장은 현재 직원 수 2천여 명, 연 매출 240억 원에 이르는 (주)스냅토이즈 코리아 대표이사과 베트남 하이퐁 한인회장·기업인연합회장 등을 맡고 있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종류

대학발전기금_ 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발전기금_ 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대학발전기금_ 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대학발전기금_ 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 공연예술지원기금

- 연극/영화지원기금

-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 이체

청주대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28503)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인류 최초 3극점 7대륙 최고봉 등정
허영호 (청주대 85학번)

삼성전자 디자인그룹 전무
강윤제 (청주대 87학번)

한국인 최초 세계 50대 성악가
연광철 (청주대 84학번)

세상에 파란을 일으켜라

세계를 향한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세상에 파란을 일으킬

당신을 기다립니다.

스무살의 푸른심장 **청주대학교**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전국 2위 (2014년 5,000명 이상 사립대) ▣ 30여 개국 164개 해외 자매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